

보도자료

제목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백남준아트센터 X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공동 주최 포럼 《백남준의 유산: 비디오아트와 초문화적 대화》		
문의	포럼: 김윤서 학예연구사 t.031-201-8553 m.010-4780-1020	취재: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5. 5. 28.	쪽수	총 6매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백남준아트센터 X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공동 주최 포럼 개최**  
**《백남준의 유산: 비디오아트와 초문화적 대화》**



사진 좌) 백남준아트센터 전경. 출처 : © Nam June Paik Art Center  
 사진 우)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전경. 출처 : © Pinacoteca de São Paulo

- ▶ 현대자동차의 아트 파트너십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의 일환으로, 백남준아트센터-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3개년 큐레토리얼 교류
- ▶ 지구 대척점에 위치한 두 기관이 《백남준의 유산: 비디오아트와 초문화적 대화》를 주제로 포럼 개최,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을 구상했던 백남준의 정신에서 출발한 협업 가시화
- ▶ 2025년 포럼은 향후 2026년 11월 두 미술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전시에 앞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지역적 예술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와 상파울루 소재 피나코테카 미술관이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3개년 큐레토리얼 교류를 진행한다. 지난 2월 18일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신규 파트너십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의 일환으로 지구 대척점에 위치한 두 기관이 초지역적 예술 협업에 동참하며, 백남준아트센터에서 5월 31일 포럼을 개최한다. 이 협업은 양 기관의 현지 방문 리서치 트립과 포럼을 포괄하며, 2026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와 경기도 용인에서 공동 전시 개최로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백남준의 유산: 비디오아트와 초문화적 대화》를 주제로 여는 이번 포럼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의 장을 구상했던 백남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 반대편 두 미술관의 협업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포럼 초청 연구자, 음악가, 방송국 프로듀서, 큐레이터, 아티스트는 언어, 음악, 방송, 그리고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각자의 연구 궤적에서 문화의 이동과 확산에 주목해 초문화적 대화를 이어간다. 백남준의 20세기 위성 예술에서부터 동시대 미술로 이어지는 포럼은 197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로 시작된 백남준과 브라질의 인연을 바탕으로 지구 반대편에 닿아있는 백남준의 유산을 조명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포럼 이후 2026년 11월 두 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릴 전시에 참여할 아티스트로 비아리츠(biarritzzz, 1994년 포르탈레자 출생),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 1980년 오렌지카운티 출생),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1980년 제주 출생), 비비안 카쿠리(Vivian Caccuri, 1986년 리우데자네이루 출생) 네 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전시 참여 작가 중 브라질에서 비아리츠가 참석해 서로 다른 언어를 뛰어넘는 언어로서의 자신의 창작을 소개한다.

공동 전시 개최에 앞서 이번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지역적 예술 협력을 활성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또는 현장 접수 가능하다. 백남준아트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2025년 포럼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백남준아트센터 X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 행사명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백남준아트센터 X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공동 주최 포럼 《백남준의 유산: 비디오아트와 초문화적 대화》
- 일시 : 2025. 5. 31.(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 발표자 : 임두빈(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나희경(음악가), 이태웅(KBS 프로듀서), 손부경(빙햄턴 뉴욕주립대학교), 안나 마리아 마이아(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안나 파울라 로페즈(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비아리츠(아티스트)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 후원 : 현대자동차
- 참가 :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및 현장 접수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꿈꾸었던 20세기 백남준의 위성 예술 이후, 백남준아트센터와 상파울루 소재 피나코테카 미술관이 '백남준의 유산'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는 2025년 4월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포럼에 연이은 공식 프로그램으로, 2026년 11월 두 미술관의 공동 전시 개최에 앞서 초지역적 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1부에서는 한국과 브라질의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접촉을 주제로, 언어, 음악, 방송을 조명한다. 임두빈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가 언어의 이동을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며, 나희경 음악가가 경계를 넘는 브라질리언 사운드에 대해, 이태웅 KBS 프로듀서가 공영방송이 증개한 브라질과 한국의 만남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1980년대 한국과 브라질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방송된 백남준의 위성 예술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손부경 연구자(빙햄턴 뉴욕주립대학교)가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와 국내 시청 경험에 대해, 안나 마리아 마이아 수석 큐레이터와 안나 파울라 로페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시각예술가 비아리츠가 백남준의 유산과 접점을 형성하는 오늘날 브라질의 현대미술에 대해 발표한다.

백남준의 20세기 위성 예술에서부터 동시대 미술로 이어지는 포럼은 197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로 시작된 백남준과 브라질의 인연을 바탕으로 지구 반대편에 닿아있는 백남준의 유산을 조명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어, 포르투갈어 두 개 언어 간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njp.ggcf.kr/>)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 또는 현장 접수 가능하다. 백남준아트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NamJunePaikArtCenter>)에서도 생중계된다.

**- 프로그램**

2025. 5. 31.(토) 오후 1시 30분-5시 20분,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시간	세션	구분	참여자
13:30~13:40	개회	환영 및 포럼 소개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3:40 -15:10	1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임두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경계를 넘는 브라질리언 사운드	나희경, 음악가
		공영방송이 중개한 브라질과 한국의 만남	이태웅, KBS 프로듀서
15:10 -15:30	휴식		
15:30 -17:00	2부	더 지역적일수록: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와 국내 시청 경험	손부경, 빙햄턴 뉴욕주립대학교
		브라질 현대미술 동향과 백남준 효과	안나 마리아 마이아,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다른 언어를 넘어서는 마법	비아리츠, 아티스트 X 안나 파울라 로페즈,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17:00 -17:20	질의응답		

■ 2026년 전시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백남준아트센터 X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  
2025년 공동 주최 포럼 이후, 2026년 전시에 참여할 아티스트로 비아리츠(biarritz, 1994년 포르탈레자 출생),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 1980년 오렌지카운티 출생),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1980년 제주 출생), 비비안 카쿠리(Vivian Caccuri, 1986년 리우데자네이루 출생) 네 명이 선정되었다. 전시는 2026년 11월 백남준아트센터와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에서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비아리츠(biarritz, 1994년 포르탈레자 출생)[1],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 1980년 오렌지카운티 출생)[2],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1980년 제주 출생)[3], 비비안 카쿠리(Vivian Caccuri, 1986년 리우데자네이루 출생)[4] (Photographs: AYSHA [1], Charlie Swinbourne [2], Daniel Zox [3] and Rebekah Flake [4])

##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및 협업 미술관 소개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는 국내외 예술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전시를 선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신규 아트 파트너십으로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예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초지역적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백남준아트센터

2008년 경기도 용인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 자신이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며 그의 작품을 소장, 연구, 전시, 보존함은 물론, 백남준 예술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의 백남준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와 드로잉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 작품 279점과 아카이브 2,775점을 소장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 시대의 정보와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담론을 수용하는 기획전 개최 및 국내외 예술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과 기술로 연결된 함께하는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다.

## **피나코테카 미술관**

피나코테카 미술관(Pinacoteca de São Paulo)은 1905년 상파울루 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상파울루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다. 19세기부터 현대까지의 브라질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소장, 전시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열린 교류를 지향하며 폭넓은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나코테카 미술관은 모두 3개의 건물(Pina Luz, Pina Estação, Pina Contemporânea)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는 브라질 근현대 미술 컬렉션 전시 및 국내외 예술가들의 기획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다학제적 공공 프로젝트가 함께 펼쳐진다.